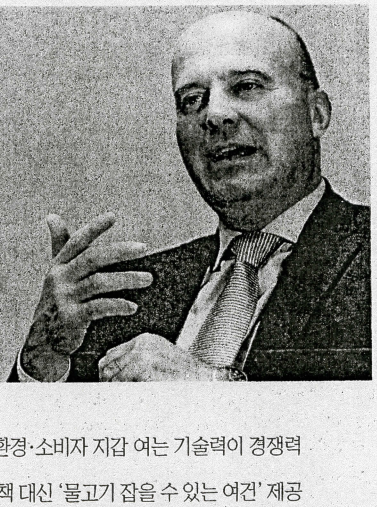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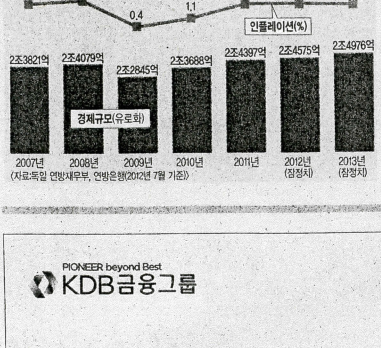
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K- next paradigm

정권 바뀌어도 정책 큰 틀 계승
일관성이 獨경제 성공 낳았다

인터뷰 하르트무트 코쉭 재무차관



"예측가능한 기업환경·소비자 지갑 여는 기술력이 경쟁력
직접적 中企 지원책 대신 '물고기 잡을 수 있는 여건' 제공
한국, 대·중소기업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 만들어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가 유럽을 공황 상태로 내몰고 있다. 실업률은 치솟고 경기회복의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 국가가 있다. 바로 독일이다. 유럽연합(EU) 통계청이 밝힌 올 10월 독일의 실업률은 5.4%다. 독일 통일 이후 최저 수준이다. 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 자발적 실업자가 많은 독일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다. 특히 스페인과 그리스의 실업률이 각각 26.2%, 25.4%인 점과 비교하면 독일 경제의 힘은 두드러진다. 재정위기에 빠진 국가들은 독일의 지갑이 열리기만을 지켜보는 실정이다.

하르트무트 코쉭(52) 독일 연방정부 재무차관을 지난달 29일 수도 베를린에 있는 연방의회에서 만났다.

그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의 연정 파트너인 기독사회당(CSU) 소속의 6선 연방의원이으로, 2009년 9월 재무차관 자리에 올랐다. 한·독 의원친선협회 독일 측 회장을 12년 동안 맡은 지한파 의원 겸 경제관료다.

독일 경제의 강점 1…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기술력

코쉭 차관은 "재정위기로 유럽 소비자들이 지갑을 꽁꽁 닫았을 때 독일 기업들은 최고 품질의 제품으로 승부했다"면서 "독일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더욱 조심스럽게 구매행위를 하는 불황 속에서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 진정으로 기술력을 갖춘 제품"이라며 "독일 제품들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에서도 선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쉭 차관은 "이는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독일의 기계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전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1999년 유로화 통합 이후 독일의 EU지역 수출은 급증했다. 2010년 독일 수출의 63.3%가 역내 수출이었다. 유로존 경제위기로 최대 수출지역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독일기업은 흔들리지 않았다.

독일 경제의 강점 2…일관성 있는 경제정책

코쉭 차관은 "독일 정부는 경제정책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상황에 맞게 살을 붙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좋은 정책 없이 경제 안정이나 경제성장은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쉭 차관은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전임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어가는 독일 정부에 대해 설명했다. 과거 집권 세력이자 지금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SPD)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경제정책의 큰 틀을 만들었고 기민당의 메르켈 총리가 그 정책을 계승했다"면서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독일 경제의 성공을 낳았다"고 말했다.

독일은 한때 통일 후유증에 시달렸다. 2003년 슈뢰더 총리는 독일 경제의 개혁 청사진인 '어젠다 2010'을 발표하며 독일식 경제살리기에 나섰다. '어젠다 2010'은 고용·연금·의료·세제·교육 등을 망라하는 개혁 패키지였다. 정년을 상향조정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먼저 구축한 뒤 해고보호법 등 과도한 고용보장 정책을 개혁하며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가져왔다.

2005년 집권한 메르켈 총리는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슈뢰더 전 총리의 개혁정책을 계승했다.

또 일부 정책에 자신 만의 색깔을 입히기도 했다.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세제 개혁이 대표적이다.

독일 경제의 강점 3…강한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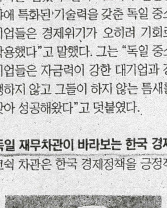
코쉭 차관은 "독일 정부는 중소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추진한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다만 발전된 교육시스템을 통해 인재를 키웠고, 인재들이 중소기업을 택했다"면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이들 연구소가 중소기업들과 기술 협력한 게 강한 중소기업의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물고기를 직접 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의미다.

코쉭 차관은 "유럽에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대기업들은 근근이 살아남았지만 다른 국가의 중소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그러나 전문분야에 특화된 기술력을 갖춘 독일 중소기업들은 경제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중소기업들은 자금력이 강한 대기업과 경쟁하지 않고 그들이 하지 않는 틈새를 찾아 성공해왔다"고 덧붙였다.

독일 재무차관이 바라보는 한국 경제

코쉭 차관은 한국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존 재정위기 등 경제위기 상황을 잘 극복했다"면서 "이는 경제정책이 좋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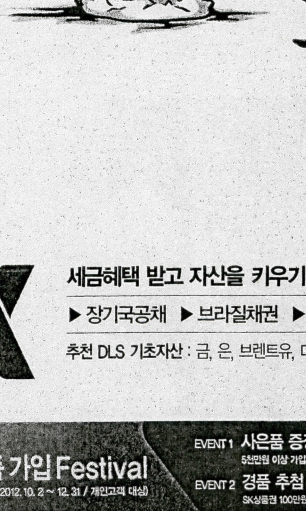
하르트무트 코쉭 독일 재무차관 (Hartmut Koschyk)

1959. 4. 16	독일 바이에른주 포르하임서 출생
1978	기독사회당(CSU) 입당
1978~1983	사관후보생으로 군 생활
1983~1987	본 대학서 역사학·정치학 전공
1987~1991	주방자 연맹 사무총장 (코쉭 차관의 부모가 주방자 출신)
1990~현재	연방하원의원(6선)
1998~2010	한·독 의원친선협회 독일측 회장
2005~2009	연방하원 내 CSU 의원연합 사무총장
2009. 10 ~현재	독일 연방정부 재무차관

베를린=글 하윤해 기자, 사진 이동희 기자
justice@kmib.co.kr

PIONEER beyond Best
KDB금융그룹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012-06348호(2012.10.31~2013.10.28)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es Member 2012/13
KDB대우증권,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World지수 편입



세금혜택 받고 자산을 키우기 위한 든든한 투자방법
▶장기국공채 ▶브라질채권 ▶ELS/DLS(파생결합증권)
추천 DLS 기초자산 : 금, 은, 브렌트유, 미달러화가격, 미국하이일드ETF

투자상품 가입 Festival
(2012. 10. 2 ~ 12. 31 / 개인고객 대상)
EVENT 1 사은품 증정 이벤트
5천만원 이상 가입 고객 SK상품권 증정
EVENT 2 경품 추첨 이벤트
SK상품권 100만원(2명), 10만원(20명)

KDB대우증권
고객지원센터1588-3322

※KDB대우증권은 금융투자상품의 특징, 수수료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개개인의 투자성향과 상품의 투자위험등급을 필히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과 판단하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상품 가입 전 계좌개설시 간이투자설명서, 투자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반드시 확인, 투자자산, 환매방법, 수수료 및 보수 등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중도 환매 및 원리금 지급이루기 없습니다. ※브라질 국가 디폴트 위험, 금리변동 위험, 환변동 위험, 유동성 위험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금리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장내에서 거래할 수 없으므로 유동성이 극히 제한되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최초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중도 환매시 중도상환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LS, DLS는 세금 혜택과 무관합니다.